

내가 만난 감상자들 몇몇 중 나에게 작품 외형에서 보이는 신화적 근거를 묻는 이들이 있었다. 그러나 난 그러한 해석을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상력 속의 공통부분 중 잊혀진것, 공포속에서 지속되는 느낌의 일부와 지리, 언어, 문화, 정치적 장벽을 뛰어 넘는 것이 내게는 중요한 일과 고민으로 내 생활속에 접근되기 때문이다.

시간과 공간속에서 흙의 마띠에르가 주는 긴장과 힘에서 섬세하고 세련되게 나의 것으로 승화시켜, 형태를 단순한 외관이 아닌 상상력을 통하여 서로 상반되는 예상 밖의 여러 형태와 조화시키는데 중심이 있다. 그것은 작품이면에 풍부한 비가시적 세계를 암시해 보려 하기 위함이다.

인간에게 인간의 원초적인 진리, 영원한 특징들 즉, 사랑, 자애로움, 화합, 화려함, 가식, 잔혹성, 고독을 회복시켜 작품하나 하나의 형상속에 무엇이 한 인간을 보편적인 인간으로 만드는지 늘 결정할 수 없는 고민을 작품을 통하여 발견해 보고 그것은 언제나 나에게 문제의식으로 남을 것이다.

1996년 10월